

내년 '아태 오케스트라연맹 총회' 광주서 열린다

AI 기반 창작·유통·관객 전략으로 새로운 표준 제시
기술과 예술 융합 아시아 문화도시 도약 기반 마련



AI 융합 미래형 공연 장면

/광주광역시 시청 제공

광주시가 국내 최초로 'APRO 총회' 유치에 성공, 아시아 문화예술 협력 중심도시의 위상을 입증했다.

광주광역시는 1일 일본 가와사키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오케스트라 연맹(APRO, Asia-Pacific Region Orchestras) 총회' 폐막식에서 2027 APRO 총회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APRO는 아시아-태평양지역 주요 오케스트라·공연기관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최고 수준의 오케스트라 공연예술 협력 기반(플랫폼)이다. 지난 1997년 창설돼 아시아-태평양 오케스트라의 정책 방향과 협력 체계를 이끌고 있다.

이번 선정은 광주의 문화적 위상과 미래 전략이 국제적으로 공식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있다. 역대 총회 개최지는 도쿄, 상하이, 모스크바, 시드니, 뭄바이, 마카오, 싱가포르 등이며 대한민국에서는 광주가 최초로 총회를 유치했다.

2027 APRO 총회는 광주예술의 전당이 주최·주관한다. 광주예술의 전당은 총회를 통해 오케스트라의 역할을 '공연단체'에서 '국제적 문화 플랫폼'으로 확장해 APRO의 변화를 이끌고, 인공지능(AI) 기반 창작·유통·관객 확장 전략을 선보여 아시아 공연예술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방침이다.

광주예술의전당은 주요 발제자로 참여해 '오케스트라의 국제 공동제

작 및 디지털 유통 확대 전략을 제시해 기존 '인적 교류 중심' 구조를 '기술 기반 협력'으로 전환하는 체계(패러다임)를 소개했다.

광주시는 이번 총회 유치로 광주의 인공지능(AI) 기술과 공연예술의 융합 방향을 제시하고, 아시아 대표 문화도시로 본격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광주시는 앞서 '2020 APRO 총회' 개최지로 선정됐으나, 코로나19 사태로 행사가 취소됐다. APRO 총회는 이후 6년간 중단됐다가 지난 3월 30일부터 4월1일까지 일본 가와사키에서 열렸다.

올해 총회에는 광주예술의전당, KBS교향악단, 코리안챔버오케스트라 등을 비롯해 독일,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태국,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 등 14개국에서 50여 개 주요 오케스트라와 공연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총회는 '동서·신구 문화를 잇는 플랫폼으로서의 오케스트라'를 주제로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AI) 기술, 세계화(글로벌) 협력 모델 등 공연예술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의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광주예술의전당은 주요 발제자로 참여해 '오케스트라의 국제 공동제

작 및 디지털 유통 확대 전략을 제시해 기존 '인적 교류 중심' 구조를 '기술 기반 협력'으로 전환하는 체계(패러다임)를 소개했다.

윤영문 광주예술의전당장은 "2027년 총회에는 올해 불참했던 중국을 비롯해 APRO의 특별회원국인 영국 오케스트라 연맹, 독일 오케스트라 연맹 등의 참가도 예상된다"며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도시이자 아시아 민주주의의 성지로서 역대 최대 규모의 성공적인 총회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는 이번 총회 유치를 통해 아시아 문화예술 협력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오케스트라 연맹 총회는 공연예술계의 정책과 흐름을 주도하는 중요한 국제 행사로 평가된다. 2027년 총회는 광주예술의전당을 중심으로 다양한 국제 협력 프로그램이 추진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인공지능 기술과 공연예술을 결합한 새로운 문화 콘텐츠 모델을 적극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연 제작과 유통, 관객 경험 전반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겠다는 전략이다.

/이가영 기자

현대차, ST1 활용 재활용·폐기물 스마트 수거 시연 개최

현대차가 성북구에서 6개월 동안 친환경 스마트 수거차 실증사업에 나선다. 현대자동차는 최근 서울시 성북구에 위치한 서울특별시민방위교육장에서 현대차 국내CV사업실장 오기용 상무,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관계자,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 산재예방감독과 관계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동부지사 관계자, 성북구청 청소행정과 관계자 등 행사 관계자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전동화 비즈니스 플랫폼 ST1을 활용한 폐기물 스마트 수거 시연 행사를 열었다.

현대차는 시연 행사에서 친환경 차량 ST1 기반의 스마트 수거차 2대(덤핑형, 무빙플로어형)로 재활용품을 수거 및 적재하고 운반하는 작업을 선보였다. ST1 덤핑형 스마트 수거차는 위아래 슬라이딩 방식으로 개폐하는 적재함 측면문과 낮은 지상고를 갖췄다. 작업자는 차량 옆면에서 재활용품을 손쉽게 차에 실을 수 있으며 간단한 스위치 조작으로 적재물을 내릴 수 있다.

ST1 무빙플로어형 스마트 수거차는 적재함 바닥 레일의 전·후 이동이 가능해 작업자가 차량에 오르지 않고도 재활용품의 상·하차가 가능해 협소한 공간에서도 무거운 재활용품을 적재 및 하역하기 편리하다.

실증 기간 스마트 수거차를 운행하는 작업자는 엑스블 슈더를 착용한다. 현대차는 작업자가 착용 로봇 '엑스블 슈더(X-ble Shoulder)'를 입고 폐기물을 적재하는 모습도 선보였다. 엑스블 슈더는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의 자체 기술로 개발한 산업용 착용 로봇으로, 사용자의 상완(어깨) 근력을 보조해 근골격계 부담을 크게 줄여준다. 친환경 차량인 ST1을 활용해 재활용품 및 폐기물을 수거하면 차량 소음을 줄일 수 있어 거주 만족도가 향상되고 민원이 감소하는 등 다각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ST1의 장점인 저상 플랫폼으로 승하차가 빈번한 작업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스마트 수거 설루션을 적용해 폐기물 처리 사업의 운영 효율도 높일 수 있다.

이유빈 기자

광주광역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보장기간 2026.1.20. ~ 2027.1.19.(1년)
※종료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별도 가입절차 없이
군복무 시작과 동시에 자동가입

보험료 부담 없이, 타보험
가입여부 관계없이 중복 보장

보장대상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군복무 청년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 현역병
또는 직업군인, 사형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제외 ※ 보장기간 중 전역자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제외

지급방식

1. 상해발생

2. 보험사청구

3. 보상여부 검토

4. 보험금결정 및 지급

상담 및 청구

상담(메리츠화재해상보험)
☎ 전화번호 070-4693-1655, 070-8892-3786
☎ 서훈접수(FAX) 070-4758-8556

문의: 광주광역시 청년정책과 062)613-2723